

제목: 배꼽이 사라진 날

이름: 김서린

주말이야기: 우리 가족은 '런닝맨'을 좋아한다. TV 프로그램인데 재밌다.

토요일 오후에 심심해서 런닝맨 다시보기를 보는데, 양세찬 송지효가 한 팀이었다.

한명은 침범학을 하고 한명은 암자였다가 물건을 맞는 게 일이었다.

파트너와 짹짜꿍이 잘 맞아야 했는데 잘 맞았다. 아니, 일부러 틀렸다.

그때를 했는데 양세찬, 송지효 모두 파란색, 노랑색, 초록색, 흰색의 벽화가 되어 있었다.

난 그 모습이 너무 웃어서 가족들과 배꼽에게 웃겼다

그게 있어서 이기면 쭈쭈미라면을 먹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동생은 라면은 끊먹었다.

요즘엔 쭈쭈미가 안되다가 우리는 콩나물 냉면과 "엄마가 달했다."

나 아빠, 엄마는 콩나물을 뿐이 콩나물라면을 먹었다.

콩나물 머시아식했고, 면을 짙었기 때문에 정말 맛이었다. 역시는 역사다 (¶)

다시 런닝맨을 보니 유재석이 "길끼빠빠"(?)라고 해서 빙터졌다.

오늘은 정말로 '배꼽이 사라진 날'이었다.